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崑會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替口座: 010983-31-0 513119
 私書函: 서울清涼郵局137號

海東名將傳 (忠武公編) (1)

大提學文獻公 洪良浩 原作

1. 진주목사가 되기까지

김시민(金時敏)은 목주현(木州縣) 至今의 天原(天原) 사람이 다. 그는 어렸을 때 역경에 빠져서 공부를 많이 못하였으나 자라는 몸이 장대하고 인품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선조 때 무과(武科)과기에 급제 하였다.

〔그는 벼슬을 하여 훈련관(訓練官)이 되었는데 어떤 문(文)을 가지고 병조판서(兵曹判書)와의 할 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옥신(獄新)하다가 크게 꾸지람을 받았다. 그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모자를 벗어 땅 바닥에 던져 짓밟아 버리고 벼슬을 그만 두었다. 이때문에 그는 역경에 빠져서 생을 하였다.〕

선조 二五(二五)년 임진(壬辰)·서기 一五九二(一五九二)에 김시민은 진주목(晉州通判)이 되었다. 이때 四(四)월에 해적들이 대거 진해(鎭海)와 고성(固城)으로 들어와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이 물러나 도망하자 남해(南海)의 여러 장수들이 다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다. 이때 김시민은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잡히 도망하려는 사람은 잘라 죽일 것이다.」 하며 진주 관내의 군사를 다 성안으로 들어 오게 한다 남너를 적당히 섞어서 행오(行

伍)를 편성하고는 사우고 지 키는 온갖 계획을 마련하였다. 김시민은 왜란이 일어날 때 미리 염조(鹽槽) 一五〇(一五〇)여근을 다려서 화약을 만들어 총 七(七)십 여 자루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관내에서는 무술이 능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뽑아 늘 총 또는 기수를 익혔다.

왜적들이 진주성(晉州城)을 빼앗겼다고 큰 소리를 치자 진주목사(牧使) 이경(李敬)은 도망하여 지리산(智異山)에 숨어 버렸다. 영남 초유사(嶺南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진주로 달려와서 김시민으로 하여금 주의 사 무(州事)를 맡아 보게 하였다. 이에 김시민은 무기를 정비하고, 성지(城池)를 수리 하여 군사를 모아 진주성을 지켰다.

김성일은 김대명(金大鳴)을 소모관(召募官)으로 삼아 부서를 나누어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고성(固城)에서 격파 하였으나, 그러나 뒤에 적은 다시고 성, 진해, 사천을 함락 시키고 장차 진주성으로 향하려 하였다. 먼저 김시민은 순찰 하라는 명령에 따라, 남면(南面) 五〇(五〇)여 명을 거느리고 영산(靈山)으로 나갔다가 적에게 쫓겨 물러나와 있는 장수 윤탁(尹鐸)을 배어 죽였다. 이때 함안군수(咸安郡守) 유송인(柳崇仁)의 군사가 적을 만나 다 무너지고 거느리고 있던 백여 명은

(非賣品)

이 회보는 通常會費 年間 2千圓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나 未納入한 宗親께서는 納金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주대첩(晉州大捷)

김시민은 계속적으로 와서 싸움을 독촉 하였다. 김시민은 조대군(曹大坤)과 함께 정병(正兵) 一천여 명을 거느리고 바로 남강의 언덕에까지 왔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

김시민은 이 싸움에 승리한 공으로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다.

이 때 금산(金山)·개령(開寧) 등지의 적은 매우 치열하였으나 김시민은 세고을의(慶尙右監司) 김성일은 세고을의 군사를 더 징발하여 여기를 지키고 있는 김면(金沔)에게 불려 오게 하였다.

〔縣에서 五(五)리쯤 떨어져 있는 곳이였다. 이때 우리 군사들은 죽기를 기하고 싸워 적의 목을 베고 활을 쏘아 죽인 수는 매우 많았다. 적이 물러나 도망할 때 우리는 성 밑에까지 쫓아가서 크게 파하니, 적들은 성을 버리고, 밤을 타고 도망하여 고성에 집결하였다.〕

김시민은 고성에 있는 적을 습격하려고 정병을 뽑아 거느리고 진주의 남쪽에 진출하고 있었다. 밤중에 행군하여 가만히 대진령(大陣嶺)을 넘어 새벽에 고성의 성 밑에 유박하였다. 그리고 급히 북을 울리고 고함을 치며 공격할 차비를 차리니, 적도 들은 두려워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대로 있다가 밤에 도망하여 진해(鎭海)의 적과 함께 모여서 도망하였다.

김시민은 뒤쫓아가서 적을 크게 파하였다. 그리고는 계교를 내어 진해에 있는 적장 평소대(平小大)를 파어내어 이를 사로잡아 왕이 있는 행재소로 보내고, 연이어 세성(三城)을 회복하니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치게 되었다.

김시민은 이 싸움에 승리한 공으로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다.

그런데 김면은 진주성의 김시민이 장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곧 글월을 보내 원병을 청하였다. 김시민은 곧 정병 一천여 명을 거느리고 거창(居昌)으로 달려 가서 김면과 함께 힘을 모아 적과 사랑암(沙郎岩)의 앞에서 싸웠는데, 이때 김면은 활을 휘두르고 말을 달려 적을 무찌르며 김시민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 공에게 높은 벼슬을 준 까닭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사나이가 차라리 싸움터에서 죽을지언정 물러서지는 않겠다.」

김시민은 활을 쏘면서 적진으로 달려들어 가서 연달아 적들을 쓰러트리니, 적은 드디어 사기가 꺾이고 모든 군사들이 무너졌다. 며칠 뒤에 또 적과 싸웠는데, 이때 김시민은 또 적을 쳐부수고, 여러 명의 무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날 김시민은 적의 칼에 다리를 맞아 상하였다. 이때 김면은 눈물을 흘리며면서 위로 하였다.

이 때 김시민은 드디어 진주성으로 돌아왔다.

적장 우시 등원(羽柴 藤元 郎)은 금산(金山)에 머물러 있었는데, 병력이 가장 강하였다. 이때 김시민은 「이러한 계교는 틀림 없이 진주성을 완전히 지키게 만듦 것이다.」 이는 진주 사람들의 복이다.

六(六)일에 적장 우시 등원(羽柴 藤元 郎)은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주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성 안에는 군사가 겨우 三(三)천八百 명이 있었는데 지휘자는 진주목사 김시민, 판관 성수명(成守命)·공양군수 이광(梁) 등이었다. 김시민은 이들을 나눠서 각각 성철을 맡아 지키게 하고는 고요히 때를 기다렸다.

(다음호에 계속)

그러나 김면은 진주성의 김시민이 장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곧 글월을 보내 원병을 청하였다. 김시민은 곧 정병 一천여 명을 거느리고 거창(居昌)으로 달려 가서 김면과 함께 힘을 모아 적과 사랑암(沙郎岩)의 앞에서 싸웠는데, 이때 김면은 활을 휘두르고 말을 달려 적을 무찌르며 김시민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 공에게 높은 벼슬을 준 까닭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사나이가 차라리 싸움터에서 죽을지언정 물러서지는 않겠다.」

김시민은 활을 쏘면서 적진으로 달려들어 가서 연달아 적들을 쓰러트리니, 적은 드디어 사기가 꺾이고 모든 군사들이 무너졌다. 며칠 뒤에 또 적과 싸웠는데, 이때 김시민은 또 적을 쳐부수고, 여러 명의 무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날 김시민은 적의 칼에 다리를 맞아 상하였다. 이때 김면은 눈물을 흘리며면서 위로 하였다.

이 때 김시민은 드디어 진주성으로 돌아왔다.

적장 우시 등원(羽柴 藤元 郎)은 금산(金山)에 머물러 있었는데, 병력이 가장 강하였다. 이때 김시민은 「이러한 계교는 틀림 없이 진주성을 완전히 지키게 만듦 것이다.」 이는 진주 사람들의 복이다.

六(六)일에 적장 우시 등원(羽柴 藤元 郎)은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주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성 안에는 군사가 겨우 三(三)천八百 명이 있었는데 지휘자는 진주목사 김시민, 판관 성수명(成守命)·공양군수 이광(梁) 등이었다. 김시민은 이들을 나눠서 각각 성철을 맡아 지키게 하고는 고요히 때를 기다렸다.

(다음호에 계속)



祝 發展

安東金氏天安市宗親會

- 會長 在喆
- 副會長 泰振
- 總務 榮基
- 監事 泰允 永浩

安東金氏大田宗親睦會

- 顧問 宗鎮
- 名譽會長 在秉
- 會長 文會
- 副會長 容郁
- 總務 廷會
- 理事 漢默 泰默 馥應
- 理事 殷浩 光會 泰榮
- 理事 在九 寬會 斗會
- 理事 泰秀 在權
- 幹事 泰運
- 監事 哲植

(권호에서 계속)

원종의 일행은 장도를 출발한 날 개정에 들어가서 그날은 개경에서 유숙했다. 원종은 개경의 가궁(假宮)에서 자고 피로운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이튿날 20일, 불의에 세조 후비라이의 조사(詔使)에 접(接)했다. 이때문에, 일행은 예정을 변경하여 하루 더 개정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조서(詔書)는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른 형식의 것이었다. 그것은 고려의 반란자 최탄에게 내려진 것이고, 그것이 강도의 군신들에게도 행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이 취해져 있었다. 즉 세조 후비라이가 이번에 최탄에게 조서(詔書)를 내린 것인데, 그 일을 강도의 군신(君臣)도 일단 명심(銘心)하도록 동문(同文)의 조서(詔書)를 보내온 것이다.

風濤(5) 井上靖著 金崙會譯

고려 궁주도령(高麗國龜州都領) 최탄(崔坦) 등 및 북계(北界) 五十四성(城) 서해(西海)의 군민(軍民) 등에 고유(告諭)함. 최근 최탄이 아뢰기를, 고려의 역신(逆臣) 임연(林衍)이 사람을 파견하여, 여러 백성들과 그의 처자(妻子)를 유괴하고 위협하여 동쪽 지방을 정복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명령에 부종하지 않으면, 마땅히 살해할 것이라 하고, 그대들은 그 순리(順理)와 역리(逆理)를 잘 살피서 위협에 부종하지 말고, 반역 도망을 쳐서 무찌르고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라. 그의(義)는 높이가 상(嘉)할 것이로다. 지금 탄(坦)은 이미 칙명(勅命)을 내렸다. 기타의 이민(吏民)들은 별도로 행중서성(行中書省)에 칙령(勅令)하여, 소중히 잘 무호(撫護)하도록 하겠다. 오직 그대 신민(臣民)들은 짐(朕)의 마음을 잘 체득하고, 더욱 충절(忠節)을 다 하도록 하여 원종은 자기 눈물을 의심했다. 원종은 떨리는 손으로 조서(詔書)를 가지고, 그것을 몇 번이

고 읽어 보았다. 최탄(崔坦)의 일당이 난(亂)을 조작한 후자의 세력보전(勢力保全)을 도모(圖謀)하고 고고군의 내린(來)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 형세에 있다는 것은 입조도종(入朝途中)의 이상용으로 부터 강도에 파견된 사자에 의하여 원종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조 후비라이가 한 반란자(叛亂者)의 요망을 들어 출절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아서, 그것은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문(詔文)에서 엿보이는 사태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 최탄 및 그 일행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언사(言辭)와 언사(言辭) 사이에는 불친한 얼굴이 엿보였다. 반란자 최탄은 자신이 그곳의 수장(首長)을 죽인 북(北界) 서해의 60성(城)을 들 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情)이 모호하고 내부(內附) 희망 상(情狀)은 절차에 따라 먼저 세조 후비라이는 받아들여, 이 조서(詔書)를 만든 것이 틀림없었다. 이 조문(詔文)에서 밝혀진 것은 세조가 새로히 자기 영토(領土)에 포괄(包括)시킨 북계(北界), 서해의 군민(軍民)에게 내린 것이다. 이후 무호(撫護)를 더할 것이니 앞으로 충절(忠節)을 다 하라 고한 것이 최초의 유칙(諭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탄(坦)은 이미 칙명(勅命)을 더했다. 탄(坦)은 탄(坦)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칙(詔勅)으로서 그 회담사항을 받아 들였다. 이것을 표시 하였고, 여타(餘他)의 이민(吏民)들은 특별히 행중서성(行中書省)에 칙령(勅令)하여 소중히 잘 무호(撫護)하도록 하겠다. 이는 새로운 내부(內附)한 군민(軍民)에 그의 명령계통의 소재를 분명히 밝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에도 세조 후비라이의 조지(詔)의 뜻을 잘 체득하고 더욱 충절(忠節)을 다하라 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이미 거기에는 고려의 백성과 세조 후비라이의 사이에서 연역히 군신(君臣)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전제(前提) 하에서 한 말이였다. 원종은 곧 세조 후비라이에 주문(奏文)을 써서 이것을 사자를 시켜 자기들보다 먼저 보내기로 하였다. 나는 오로지 큰 공을 힘입어 황제앞에 나아가 비유고자 이미 이달十九일에 출발 도상 에 오르고 있으며 몹시 바쁘게 서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서도에 모여 많은 수명을 죽이고, 그 죄를 은폐하고져 중상 모략의 언사(言辭)로서 속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한 세조의 조서(詔書)에 접(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쪽이 작은 일로부터 세밀한 일 에 이르기까지 자국(自國)의 피폐상태(疲弊狀態)를 호소하고 그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연기 하 여 달라고 애원 하였을 때 곧이 쪽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던가. 이번의 경우도 이쪽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던가. 이번의 경우도 이쪽의 진정(眞情)을 토로(吐露)하고 이쪽의 호 소하고자 하는 일을 솔직히 호 소한다면 반드시 들어 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세조 후비라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생각 해 본다면, 이쪽도 사실히 없 다고는 말할 수 없다. 먼저 김방경(金方慶)을 보냈 는데, 김방경은 폐립(廢立) 문 제를 세조에 남는(納得) 시키기 위한 사자(使者)였으며, 자기 로서의 사자(使者)라기 보다는 오히려 임연(林衍)으로부터의 사자(使者)라고 말할 수 있다. 김방경(金方慶)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 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 을 틀림없었다. 그러나, 김방 경(金方慶)의 입장은 본래 세 조의 반아 드릴 수 없는 것이었 다. 그리고 또 이장용은 북위

람의 중신(重臣)이 사자(使者)를 파견할만한 일로서 용이치 않은 일이 쓰여져 있었다. 최탄(崔坦)의 일당이 이연(李延齡)이 군대의 파견을 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조는 몽장(蒙古)에 군사二千명을 인솔하여 보내기로 하고 그의 출동 명령 을 동경의 행정(行省)에 내렸 다. 몽구도는 곧 고려에 진주 (進駐)하려고 동경에 있으면서 출동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원종으로부터 특사(特使)를 세 조 앞에 보내어, 이것을 저지 (沮止)시키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문면(文面)이였다. 그날밤 원종은 세조 후비라 이에 상주문(上奏文)을 썼다. 숙사(宿舍)인 사원(寺院)의 일 실(一室)은 야반(夜半)까지 등 불이 켜져 있었고, 몇번씩 사 람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원종 은 일행중의 두목 자 세사람과 상의하여 먼저 세조에 바칠 주 문(奏文)을 작성한 후 이것을 중 서성(中書省)앞으로 다시 보냈 다.

— 지금 들진대 우리 소방(小那)의 나라 반란민(叛亂民) 최탄(崔坦) 등이, 달려가서 상조(上朝)에 고(告)하고, 경병(京兵)이 침공(侵攻)한다고 핑계 하고 몽고병(二)천을 보내서 원호(援護)해 줄 것을 청하여서 황 제의 결정이 이미 행정(行省) 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일 은 명백히 판단하기가 어렵습 니다. 나는 일찌기 그의 반(叛)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四面에 계속)

이 되어 줄려고 하는 마음에서 원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 나온 것이다. 몽사(蒙使)의 눈

람의 중신(重臣)이 사자(使者)를 파견할만한 일로서 용이치 않은 일이 쓰여져 있었다. 최탄(崔坦)의 일당이 이연(李延齡)이 군대의 파견을 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조는 몽장(蒙古)에 군사二千명을 인솔하여 보내기로 하고 그의 출동 명령 을 동경의 행정(行省)에 내렸 다. 몽구도는 곧 고려에 진주 (進駐)하려고 동경에 있으면서 출동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원종으로부터 특사(特使)를 세 조 앞에 보내어, 이것을 저지 (沮止)시키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문면(文面)이였다. 그날밤 원종은 세조 후비라 이에 상주문(上奏文)을 썼다. 숙사(宿舍)인 사원(寺院)의 일 실(一室)은 야반(夜半)까지 등 불이 켜져 있었고, 몇번씩 사 람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원종 은 일행중의 두목 자 세사람과 상의하여 먼저 세조에 바칠 주 문(奏文)을 작성한 후 이것을 중 서성(中書省)앞으로 다시 보냈 다.

宗告 通常會費 納付의 件 通常會費는 宗事に 翼思會 由로 宗親의 義務라고 料 되오니 84年度 通常 費를 尚今 納入 하시지 은 宗親은 신속히 納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從前 定款에 通常會費 一 千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는 벌써 15年前에 制定 된 바로 至今은 諸般狀況이 달 라졌기에 4月22日에 開催 한 總會席上에서 年2千원 以上으로 可決되었음을 아 울러 알려드립니다. 大宗會 會長 明會 白

- 密直司使公派 金榮應 서울.. 西大門區弘濟洞二七〇一一二 電話.. 七二二一〇五六七·六四六四
- 安東金氏大宗會理事 開城尹公派 前會長 金賢潤 서울.. 東大門區新設洞一〇四 電話.. 二五三一五九一六
- 副使公派 金在鳳 서울.. 中區新堂三洞三七二一一二八七四 電話.. 二五二一一七六九
- 都評議公派 金永大 浦項市芝谷洞四五四一 電話.. 七三一一八四〇七
- 提學公派 金澈應 서울.. 永登浦區大林洞九一一一三 電話.. 八三二一一九八〇
- 翼元公派 金在熙 金浦郡黔丹面金谷里

“정기 총회를 마치고”

총결공 24세손 제학공파 대총회 감사: 相蒙

1984年, 4月22日 전국에서 많은 종친들이 청량리 “맘모스” 7층 넓은 홀을 가득히 메워 의욕적인 열기속에서 진지하고 원만하게 금년 총회를 마치고있음을 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많은 종인들이 가사의 바쁨을 제쳐놓고 경향각지, 특히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 하셧음은 장래에 우리 총회의 발전을 약속함이며, 축부 받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벽찬 환회를 가슴에 안고 돌이켜 보건대, 대총회가 발족된 후 장구한 세월을 지나는 성장단계의 과도기적 여건 속에서 시련을 겪는 가운데, 대총회 “정관” 준수 실천면에서, 또는 업무처리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오늘의 도약단계에서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반성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절실함도 느껴진다.

첫째, “정관”은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대총회의 지상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엄격하고 충실하여야 하고,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적 편의주의적으로, 만의 하나 운영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정관”의 개정 보완 사항도 엄밀하고 신중하게 제출하여 바르게 다듬어서 시행에 차질없이 건전한 뿌리가 내리도록 힘써야 하겠다.

둘째, 업무처리면에서도 종내의 내부 통제관리 기능을 강화 배가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처리 및 위임전결사항등 내규를 제정, 개선 실시하고 문서정비, 회계장부 기장정리의 향상을 기하여 재정이 신장되는 추세에 따른 회계 정리와 재산 관리에 일층의 완벽을 기해야겠다.

셋째로 종친들의 친화단결 면에도 특단의 배려로서 기왕의 직접 간접으로 유공 종친들의 규합을 도모하며, 지방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종인들의 단결을 계책하고 종회 사무실은 종인들이 언제 내방 하여도 친화에 넘치는 분위기가 떠오르는 환경조성에 유념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대총회의 상을 후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이바지 함에 매진하기를 일언제 언하는 바입니다.

消 息

○ 領議政 致仕한 文敬公(諱壽童 號晚保堂)의 春季享祀는 大邱地方儒林後學과 百余名의 後孫에 依해, 大邱市東區新龍洞 廟堂에서 嚴肅히 奉行하였다.

初獻 金敬守·亞獻 蔡洪基·終獻 金思仁

○ 敬順大王 春季陵享은 지난 5月8日(陰4月8日)正午에 四百余名의 後孫이 參祀, 漣川郡百鶴面高浪浦의 聖居山 陵庭에서 嚴肅히 奉行 하였다.

○ 開城尹公(諱 七霖)의 後孫 60余名은 廣州郡草月面池內里 設壇墓庭에서 春季祭享을 奉行하였다.

○ 翼元公의 曾孫, 豐壤君(諱 碩)의 墓喝을 後孫 喆源·仁會·鏞濬等에 依해 지난 3月29일에 抱川郡 內谷 墓道에 改碣하였다.

○ 鳳山先生 학계에서는 지난 4月25일에 先師鳳山公(諱 浩斗: 都評議公19代孫)의 墓道(義城郡點谷面西邊洞 免棧谷)에 暨碣하고 當日 告由하였다.

○ 翼元公 東源氏는 先大人 靑巖公(諱 溼履)와 先夫人 漢陽金氏의 墓를 抱川郡新北面三星堂里 望月山에 移安하고 지난 4月29일에 暨碣 告由하였다.

○ 紫隱先生학계에서는 先師 紫隱(諱 鳳鍾—都評議公18代孫)公의 墓道(義城郡 點谷面東逸洞 月村)에 暨碣하고 지난 5月 日에 告由하였다.

○ 都評議公派門中 興洞派에서는 英祖朝에 懷淵縣監을 지낸 諱 道應公의 墓道에 暨碣하고 지난 5月 日에 告由 하였다.

合計殘額試算表

1983.4.1 1984.3.31		1984.4.1 1985.3.31	
계	잔	계	잔
2,019,097	82,458,068	80,438,971	
44,825,769	70,202,269	25,376,500	
1,368,000	2,153,000	795,000	
30,000	4,056,000	4,026,000	
450,000	2,694,000	2,244,000	
4,584,000	7,959,000	3,375,000	
120,000,000	120,000,000		
10,596,400	10,596,400		
12,276,500	12,276,500		
305,000	305,000		
2,115,510	2,115,510		
		154,283,906	154,283,906
		2,701,299	2,701,299
	1,100,000	30,600,000	29,500,000
	1,900,000	1,960,000	60,000
		1,379,000	1,379,000
		570,000	570,000
	30,000	950,000	920,000
		4,070,000	4,070,000
		1,130,000	1,130,000
		984,000	984,000
		4,330,000	4,330,000
		23,521,200	23,521,200
		4,895,349	4,895,349
2,275,000	2,275,000		
2,538,000	2,795,370	157,340	
12,495,000	12,495,000		
3,599,751	3,599,751		
694,000	694,000		
764,040	764,040		
1,144,042	1,144,042		
260,000	260,000		
1,400,000	1,400,000		
203,490	203,490		
428,280	428,280		
319,180	319,180		
1,302,636	1,302,636		
71,400	71,400		
312,474	312,474		
390,630	390,630		
200,000	200,000		
26,600	26,600		
1,259,925	1,259,925		
228,344,754	347,787,565	347,787,565	228,344,754

1984年度歲入歲出決算書

1984.4.1 1985.3.31		1983.4.1 1984.3.31	
款	項	算	算
移 入	前年度移入金	(7,685,071)	2,701,299
基本金	基本金	(1,000,000)	
收入計定	一般收入	(29,975,200)	
	通常會費	3,000,000	1,379,000
	特別會費	760,000	570,000
	贊助金	26,215,200	23,521,200
其他收入	利息收入	(9,050,000)	
	利息	3,500,000	4,895,349
	收單金	3,500,000	4,070,000
	廣告料	1,000,000	1,130,000
	總會費	1,050,000	984,000
		47,710,271	

1984.4.1 1985.3.31		1983.4.1 1984.3.31	
款	項	算	算
基本金	基本金	(7,685,071)	
會 報	印刷費	(1,200,000)	
史料蒐集費	忠烈公傳記史料	(2,500,000)	
發給費	發給費	(6,500,000)	(2,638,030)
	印刷費	4,000,000	
	會報修理	1,000,000	
	下水道 및 運轉費	1,500,000	
支出計定	一般支出	(26,890,000)	
	贈品	300,000	84,000
	人件費	13,030,000	12,895,000
	活稅公課金	4,000,000	3,599,751
	印刷費	800,000	764,040
	廣告費		260,000
	電話通信費	1,300,000	1,144,042
	廣告費	1,500,000	1,400,000
	交通費	300,000	203,490
	燃料費	450,000	428,280
	消耗品費	350,000	319,180
	總會費	1,400,000	1,302,636
	會議費	450,000	390,630
	水道光熱費	400,000	312,474
	組織費	200,000	200,000
	贈與料	100,000	71,400
	接待費	300,000	26,600
	雜費	1,800,000	1,259,925
	雜費	(3,145,200)	
	雜費	3,145,200	47,710,271

收支計算書

1983.4.1 1984.3.31		1984.4.1 1985.3.31	
科 目	當年度金額	前年度金額	備 考
(-) 總收入金	(37,469,549)	(26,768,512)	
1. 通常會費	1,379,000	54,000	
2. 特別會費	570,000	510,000	會長團 및 서울本部理事會費
3. 贊助金	920,000	1,390,000	
4. 收單金	4,070,000		新入收單11件
5. 廣告料	1,130,000		
6. 總會費	984,000		
7. 贊助料收入	23,521,200	20,532,200	
8. 利息收入	4,895,349	4,302,312	
(-) 總 費	(29,784,478)	(24,087,213)	
1. 會報印刷費	694,000		
2. 雜 費	2,275,000		
3. 發給費	2,638,030	1,626,740	會報製作工事(330,000) 및 會報印刷費(280,000)
4. 人件費	12,495,000	11,167,000	아르날로봉 200,000, 防工事 215,000
5. 活稅公課金	3,599,751	3,678,453	
6. 印刷費	764,940	2,170,730	
7. 電話通信費	1,144,042	595,625	會報發給外
8. 廣告費	1,400,000	995,900	
9. 交通費	203,490	269,130	
10. 燃料費	428,280	369,040	
11. 消耗品費	319,180	243,370	
12. 廣告費	260,000	230,000	
13. 總會費	1,302,636	+ 49,930	前年度分은 入出帳相計殘額
14. 贈與料	71,400	93,300	
15. 水道光熱費	312,474	380,545	
16. 會議費	390,630	460,650	
17. 組織費	200,000	150,000	
18. 接待費	26,600		
19. 雜 費	1,259,925	1,706,660	
當期剩餘金	7,685,071	2,701,299	忠北 10萬圓外

原稿募集

本報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玉稿를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送 付해 주시면 採擇登載하겠읍니다.

一、論文 崇祖陸族과 倫理道德에 寄與 되는 內容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 한 經過記事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美談佳話 및 善行 職位의 陞進이나 異動事項、海外旅 行關係 逸話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

安東金氏同親會

顧問 會長 相蒙·昌會·洙萬

總務 幹事 斗會

監事 在寬 喆會

榮俊·壽鳳·潤默

松默·順宇·在龍

在沼·在福·在起

昌會·俊鎬·泰鶴

圭冕·泰範·泰成

說傳 嚴라大王이 된 南峰公

일인지 몰라도 나라에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領議政)을 지냈고 승평부원군 (昇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실수 없었을까? 그러면 나도 전 귀(李貴)는 정사일동공신(靖社一等功臣)에 후위대장(扈衛大將)을 지내고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封)해졌고, 심기원(沈器遠)은 정사일동공신(靖社一等功臣)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하고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각각 봉해졌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심기원이 함흥동안 망서리는 표정을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 고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비밀 계획을 털어 놓았다. 「그러면 거사 일자는 언제로 정하였습니까?」하고 물었다 「네! 三월 二十二일로 정했습니다.」

고려자 남봉공(南峰公)이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三월 二十二일은 살파랑격(殺破狼格)의 액운(厄運)이 끼 인 날이니 三월 十二일로 당겨 하시는 것이 좋겠소이다.」하고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기 一六二二년에 해(癸亥) 三월 十二일에 반정혁 명군(反正革命軍)은 창의문(彰義門) 밖에서 군사를 일으켜 광 해군(光海君)을 강화도(江華島)로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을 인조대왕(仁祖大王)으로 추대 하였다. 작년이 계해년(癸亥年)이라 지금으로부터 꼭 三六〇년 전이요 六十갑자(甲子)가 여섯바퀴 돌아간 셈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남봉공(南峰公)이 이분들의 사주를 받고 수일내에 왕위에 오르고, 정승, 판서가 되실분들이라고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들었던 것이다.

翼元公派 金 國 默 宜寧郡富林面大谷里

更生保護委員城北協議會 韓國反共聯盟城北支部安保會 城北警察署安西防犯委員會

副委員長 金 鏞 濼 電話：九四二九一一番

고급시계 예물일절 正安堂

住所：서울·鍾路區 禮智洞·172번지 (구·조양8호) 電話：265-6174·273-230 98



傳統文化陶藝研究 世昌窯 世昌陶藝研究所 代表 金世龍 利川郡新屯面水下里 電話(新屯) 130

崇祖理念의 確立

安養宗親會長 在 福

사람은 누구나 祖上이 있고 祖上은 子孫의 扶植을 위해서 事業을 했다. 그 事業은 子孫으로 하여금 百世를 두고 富貴를 바라는 本能이며, 그 本能이 行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子孫을 위한 事業이라면 子孫은 마땅히 祖上의 遺業을 이어 받고 祖上의 遺蹟에 汚點을 加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祖上을 뿌리라 하고 子孫은 가지며 잎이며 꽃이 될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充實해야 枝葉이 茂盛하고 꽃이 피어 그 열매 또한 充實 할 것이나 '뿌리가 弱하면 바람에 흔들리어 그 枝葉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언제나 그 뿌리에는 培土를 하고, 施肥를 하며, 약하고 병든 가지는 끊어 버려야 그 成長力이 活潑해서 充實한 結實을 볼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람도 祖上을 뿌리로 본다면 그 둥치가 되고 가지가 되는 모든 子孫들은 그 뿌리를 위해서 온갖 精誠을 傾注하고, 그 世業을 이어 받아 先祖의 行蹟을 빛나게 하며, 英靈의 奉安을 恭敬히 해야 할 것이다.

또 自身の 修養과 家庭의 敎化로, 先祖께서 애써 닦으신 家門의 光榮에 오류를 끼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世上 사람들은 祖上이 주실 福을 渴求하고 있다. 그러나 "잘 되면 제 德이요 못 되면 祖上 탓"이라는 俗談이 생길 마치, 사람들은 祖上의 福을 忘却하고 있다. 子孫의 根本인 祖上을 돌보지 않고 祖上의 福만 바란다는 것은 뿌리 썩은 나무를 쳐다 보면서 열매 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 安東金氏는 옛부터 남들이 華闊이니 양반이니 한다. 이는 오직 先祖님의 壯하신 業績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榮譽의 保存은 子孫된 者의 重且大한 責任일 것이다. 이 責任은 子孫들이 온전히 履行할 때 祖上의 福은 스스로 내려질 것이다.

筆者는 元來 貧寒한 農村出身으로 일찌기 勉學의 길을 닦지 못하여 非才薄識의 處地로서 무슨 爲先事業을 했다고 하리요 마는 몇 가지 事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여러 宗親에게 양해를 求하는 바이다.

◎ 家族 墓地 設置

우리의 祖上님은 舉矣 貧寒한 生活을 해왔고 生利를 위해서 各地를 轉轉하는 수도 있었다. 이러한 結果로 先塋은 各地에 散在하고, 子孫은 子孫대로 數百里의 遐地에 살게 되니 自然히 先塋을 찾는 子孫조차 없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번번이 겪어야 하는 外敵의 侵入은 子孫으로 하여금 鄉土를 지키고 先塋을 守護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6.25事變은 우리가 直接 겪은 體驗이다. 이러한 事變은 數 많은 離散家族과 失鄉民을 만들었다. 이래서 自然히 先塋은 失傳되고, 또 現世는 核家族 時代라. 子孫들은 生業을 따라 數百里他鄉으로 轉轉하다가보면 이 또한 失傳의 原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筆者는 思之窮之 끝에 10餘年 前부터 家族墓地를 設置할 生覺을 하였다. 그래서 墓域을 選擇하여 數十里씩 떨어져 散在한 8個所, 15位의 先塋을 한 곳으로 移葬하였다. 勿論

여기에는 힘에 겨울 마치 巨財가 投入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生活戰線에서 時間에 쫓기는 後孫들로 하여금 省墓의 길이 容易하게 되었고, 失傳의 憂慮가 없게 되었으니 甚히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서 子孫은 省墓의 機會를 자주 얻어 報本의 精神을 더욱 培養할 수 있고 族親間의 親睦이 더욱 強化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 失傳位에 대한 設置

筆者는 元來 不肖한 사람이나 舍人公을 先祖로 하는 後孫들의 推戴로 舍人公派宗親會 會長의 重責을 맡게 되었다.

舍人公(諱季友)는 大司成公(諱九容)의 孫子로서 世宗18년에 文科에 及第해서 벼슬이 司諫院 獻納을 거쳐 議政府舍人에 이르렀으나, 不幸히도 塋封이 失傳되어 子孫의 遺恨이든 中, 마침 宗親會를 通해모든 後孫들이 酬謝하고 形便대로 據財하여 景致가 秀麗한 南漢山城 기슭에 設壇하고 國立圖書館 등에서 公의 史蹟을 發掘하여 修撰, 豎碣하게 되니 이 또한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後孫으로 하여금 追遠의 精神과 敦族의 情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地方宗親會 組織

8.15의 光復을 맞이하고 이어서 6.25란 大戰亂으로 말미암아 宗族이 分散되자 各宗中에서는 族譜를 다시 整理해서 編纂하는 事業과 同時에 宗親會의 組織이 雨後竹筍처럼 생겨났다. 우리 安東金氏도 勿論 各地方에서 宗親會가 組織되고 事業도 活潑히 推進되고 있는 現實이었으나筆者가 살고 있는 安養市에는 이러한 組織이 없었다. 이래서 뜻있는 몇몇 宗親을 찾

아 詢議하고 市內에 居住하는 宗親의 住所를 색출하여 安東金氏安養宗親會를 組織하기에 이르렀다. 宗親會의 優先目的은 宗親會의 親睦을 敦篤히 하고 吉凶間行事에 相扶相助하는 美風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보겠다. 그리하여 社會의 垂範이 되고 國家나 社會의 發展에 그 一翼으로 寄與할 수 있는 契期를 만들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 安東金氏는 忠烈公 先祖를 中始祖로 모시는 血孫들이기에 『一家』라고 한다. 一家는 한집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 一家들이 한 洞에서 數年을 살면서도 相互間에 인사조차 없이 지내고 심지어는 사소한 일에 言爭까지 벌리는 일들이 생겼다. 이러한 일은 特히都市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宗親會의 組織이 가장 時急한 일이었다.

우리 安養市의 宗親會도 이제는 그런대로 활발하게 運營되고 있다. 每月에 開催하는 月例會에서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宗親會의 業務報告와 事業計劃等을 協議하고 大宗會의 連絡事項을 周知시키고, 더욱 崇祖의 精神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名勝地의 觀光 보다는 오히려 忠烈公 할아버지의 山所를 비롯해서 모든 列先祖의 墳塋을 巡拜하는 年中行事等도 하고 있다.

祖上을 崇尊하고 宗親間의 和睦을 期하는 데는 巨大한 事業을 해서 顯揚하는 것만은 아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온갖 精誠을 傾注하고 祖上의 遺訓을 이어 받아 道德과 禮節에 어긋남이 없도록 努力하여 先祖의 業에 損傷됨이 없도록 各自가 操心하고 힘써 나갈 때, 宗親會는 自然히 發展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對象이 될 것이다. (끝)



◎ 自然 健康食品 로알제리 花粉

蜂針의 神秘

로알제리는 女王蜂이 평생 먹는 食糧이다. 女王蜂의 壽命은 日벌보다 40배나 더 오래 살며 체중도 3배나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매일 자기 몸무게의 2배에 상당하는 1500~3000개 가량의 알을 산란하는 것이다. 1週間の 成長力은 500배가 되는 경이적인 能力을 가지고 있다.

수만마리 중 단 한 마리의 알벌에게만 이렇게 놀라운 能力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秘密의 열쇠가 바로 로알제리이다. 이 로알제리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은여 왕벌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만일 女王蜂이 자취를 감추게 되면 일벌은 지금까지 女王蜂에게만 공급하던 로알제리를 자기들이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 안가서 일벌의 卵巢가 肥大해서 產卵(無情卵)하게 된다. 이것을 보더라도 女王蜂의 위대한 產卵能力과 體力은 로알제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로알제리는 부화後 4~12일 까지의 젊은 일벌의 喉頭腺에서 분비된다. 人間으로 말하면 唾液腺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람은 17~18세에 타액선에서 호르몬이Parotin 분비가 왕성하다. 일벌은 부화後 4~12일이 人間의 17~18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로알 제리가 回春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일벌의 體內에서 로알제리의 원료가 되는 것은벌꿀과 花粉이다. 로알 제리는 벌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王乳라고도 하는데 王乳에 모어지는 乳白色의 精液이다.

벌꿀과 花粉이 혼합된 먹이를 먹고 자란 일벌들은 產卵도 하지 못하며 1個月가량이면 죽고 만다. 나폴레옹의 精力도 로알제리에서 나온 것이고 로마敎皇 바오로 12세가 위독상태에 빠졌을때 주치의 리시박사가 처방한 것도 로알 제리였다고한다

1988年 世界養蜂家會議에서 敎皇이 스스로 참석해서 養蜂을 칭찬한 후 로알제리의 체험담을 發表해서 世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로알 제리는 이름과는 달리 gelly 狀이 아니다. 水分이 65~70% 단백질 15% 지방 5% 당분 10% 무기질 0.8%로 꿀보다 더 成分이 濃縮하다. 특히 비타민B群의 함량이 벌꿀보다 훨씬 많고 體內에서 自律神經을 지배하는 아세틸콜린의 양은 천연물질중 최고이다.

아미노산도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필수아미노산 말고도 腦 大사에 관계가 깊은 2아미노酪酸이 들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10-hydroxydecenic acid도 存在하는데 이것은 蟲의 成長을 억제하는 물질로 관심을 끌고있다. 로알제리는 항생물질作用이 있고 현저한 抗癌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유아의 건강 成人의 老化 예방등 여러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性能不全 精神不安 腎臟기장애 血壓不調 手術후의 쇠약 腺病質등에 卓越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확실히 신비스러운 食品임에 틀림없다.

독일의 보데나트 美國의 헤이닥 등 과학자에 의해 로알제리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하여 호르몬 생성물질이나 당질 아미노산등 40여종의 成分이 알려졌고만 토텐산 비타민D, 비오틴 등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뛰어난 生命力의 根源인 R 물질이라는 것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아직도 미지의 成分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있다.

최근 食品에도 공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영양가 높은 食品도 농약에 오염되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알 제리는 無公害食品으로 보증할만 하다는 것이다.

꿀벌은 농약에 매우 약한 곤충이어서 微量의 農藥이 있어도 곧 죽고 만다. 따라서 꿀벌의 體 내에서 만들어지는 로알 제리에 農藥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뒤섞이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患者의 健康食品으로서 사용한 결과 매우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 藥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患者의 회복을 촉진하는 營養食品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오코넬박사는 閉塞性血管脈管炎에 로알 제리를 주었더니 完治되었다는 보고도 하고있다. 日本의 渡合博士는 임상시험에서 로알 제리요법의 효과로 다음것을 들고 있다.



現代蜂針研究院

院長 金贊卿 (會)

서울·特別市東大門區忘憂洞127의33號
電話: 434-5864 · 435-9410

- ① 氣分이 爽쾌해진다. ② 피로감이 없어지고 體力이 튼튼해 진것을 느끼게 된다. ③ 食欲이 증진한다. ④ 性慾이 왕성해진다. ⑤ 어깨와 허리 아픈것이 가벼워진다. ⑥ 잠을 잘 수 있다. ⑦ 변비가 낫는다. ⑧ 血色이 좋아지고 손발의 찬 것이 낫게된다. ⑨ 기미가 없어진다. ⑩ 病感이 없어진다.

이렇듯 놀라운 作用을 보게되면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한번은 시험 삼아 使用해 볼 가치가 充分히 있다고 생각된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만큼 큰 고통도 드물 것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부가 가늘가늘 해서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지 않는 것을 女性들은 경험하고 있다. 그런 때엔 자기가 좋아하는 食品을 잘 먹고 수면을 充分히 취하면 곧 원상 복구가 된다.

거친 피부가 사소한 皮膚에서 온것이라면 잠을 깊이 자고나면 回復되는 것이다. 不眠症의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신경과민에서 오는 것이라면 비타민 B₆가 과하게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치료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나 成分을고루 갖춘 食品이 바로 花粉과 로알 제리인 것이다.

로알 제리는 부신의 作用을 活潑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신피로르론 다음과 같은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① 염분과 水分의대사 ② 탄소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 ③ 신경근육기능 ④ 性的 機能에 대한 작용. ⑤ 감염이나 물리 화학적 작용에 대한 저항.

이렇게 多様하게 人體의 조절에 관여하고 있다. 로알제리는 이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活潑하게 하는 것이다.

로알 제리의 효과로서 손꼽을 수 있는 強精作用이나 체력증강 등도 직접적인 性器에 대한 작용이 아니고 로알제리의 작용으로 副腎이 보다 더 體內的 조절을 원할하게 함으로써 性的 자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英國에서 로알 제리를 계속 사용한 류우미티스患者와 관절염患者의 증상이 개선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美國의 모로르 박사는 몇가지 임상예를 통해 로알 제리를 治療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회에 25-50mg 1日 75-150 이면 充分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알 제리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으니까, 어지러우니까 이것으로 고쳐야겠다는 대중요법적인 作用을 지양하고 營養價가 높은 食品으로 사용함으로써 몸 컨디션을 조정한다는 생각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같은 蜂產品이면서도 로알 제리는 변질되기 쉬운 점이 잘 변하지 않는 벌꿀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냉장하거나 벌꿀과 混合(벌꿀 500g+로알제리 50g) 하는 것이 먹기도 좋고 安全性도 좋다.

흥미있는 이용법으로는 알콜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알콜에 로알 제리를 용해한 것을 심근경색 患者에게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도 나와있다.

매끼 식사전의 공복시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한다. 보관중 금속과 태양광선은 피해야 한다.